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Specialized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Focusing on the Busan

강 은 영 (Eunyeong Kang)*
김 선 애 (Sunae Kim)**

< 목 차 >

I. 서론	IV. 설문 분석 결과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III. 연구설계 및 방법	

요약: 이 논문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2년 도서관활성화계획에 의해 특성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27개 공공도서관 중 임시 휴관 중인 1개관을 포함한 2개 도서관을 제외한 25개 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특성화 서비스 현황,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인식, 특성화 서비스의 발전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16개관이 특성화 장서의 비중이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었으며, 20개관은 전담 직원이 없었으며, 15개관은 특성화 자료 예산이 전체 자료구입비에서 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담당자들은 특성화 서비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해야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화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관련 교육, 전담직원 배치 등과 더불어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특성화 도서관, 공공도서관 특성화, 특성화 서비스, 사서의 인식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ized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in the Busan, identify associated issues, and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the staff of 25 public libraries, excluding two libraries (one of which was temporarily closed) out of the 27 libraries operating under the 2022 Library Development Plan. The survey covered topics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ized services, perceptions of specialization, and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services. The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in 16 libraries, specialized collections accounted for less than 5% of the total collections; 20 libraries had no dedicated librarian, and in 15 libraries, the budget for specialized materials was less than 5% of the total materials acquisition budget. Despite these challenges, the librarians recognized the necessity and legitimacy of specialized services and believed that these services should continue, even in the face of insufficient personnel and budget. Additionally,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metropolitan representative libraries, along with related training and the assignment of dedicated librarian,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services.

KEYWORDS: Public Library, Specialized Library, Public Library Specialization, Specialized Service, Recognition of Librarians

*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조교수(eykang@silla.ac.kr / ISNI 0000 0004 6844 8725) (제1저자)
** 경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msa@ks.ac.kr / ISNI 0000 0004 7900 8688)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4년 8월 17일 • 최초심사: 2024년 8월 30일 • 게재확정: 2024년 9월 1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3), 87-111,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3.202409.87>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공공도서관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관으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도서관은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자료와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가치와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998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에게 차별화·전문화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특화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0년까지 운영하였다. 당시,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1개관씩 13개의 특화도서관이 지정·운영되었다.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들 중 일부는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었으나 일부 도서관은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속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아, 2002년 이후 각 도서관은 구체적인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특화서비스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노영희, 오희경, 2018). 이후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화도서관 지정 및 육성사업을 다시 추진하였다. 지역 특성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도서관서비스 제공과 지역 전문인력 채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에게 음악, 여행, 과학 등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문화 향유권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부산지역의 교육청 소속 12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특화도서관 서비스의 등장과 함께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분담수서와 도서관별 장서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교육청 소속도서관에서 시작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특성화는 이후 지역의 특성, 장서 및 서비스의 전문화, 차별화를 내세우며 여러 도서관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여 2022년에는 40개관으로 증가하여 부산지역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특성화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었다. 2020년 광역대표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도서관간 협력과 조정 없이 단위도서관이 자발적·산발적으로 운영하는 특성화 서비스에 대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복주제의 남발, 지역의 정체성, 특성 미반영, 도서관 예산, 공간과 규모 등이 부적합한 도서관에서의 특성화 운영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었다. 2022년 부산시는 『부산지역 도서관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40개 공공도서관이 추진하고 있던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주제를 조사하여 재편하였다. 중복되는 주제를 정리하고, 지역의 정체성이나 지역브랜드 등과 관련된 주제를 추가하고,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성화주제를 편성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의 내용을 개편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24년 현재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는 27개관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18개관은 기존 특성화주제를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8개관은 주제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하고, 1개관은 새롭게 특성화 서비스에 편입되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특성화 서비스의 현황과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국 단위의 특성화 도서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나 특성화 도서관 도입을 위한 제언 등에 관한 연구는 많지만, 지자체 단위의 특성화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 가령 부산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공공 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연구는 시행된 적이 없다. 따라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현황 분석과 조사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특성화 서비스의 운영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서비스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분석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다른 지역 공공도서관이 특성화 서비스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특성화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특성화 정책, 특성화 장서, 특성화 관련 프로그램, 현황 및 인식조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장서이, 김용선, 김억(2016)은 특화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통해 특화공간의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특화공간의 형태를 도식화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화공간은 분리형과 일체형으로 나타났는데, 일체형은 도서/열람 중심의 서비스였으며, 분리형은 전시/공연 혹은 체험 중심의 서비스였다. 전시/공연과 체험의 성격을 띤 분리형의 형태가 이용자에게 더욱 전문화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만족도 높은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노영희, 신영지, 곽우정(2017; 2018; 2019)과 노영희, 곽우정, 신영지(2018)는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관련 연구를 네 차례 실시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도서관의 특성화 정책과 방향성, 도서관 특화 방향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특화도서관 사서의 인식조사 기반 활성화 방안 및 비특화도서관 사서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특화도서관의 발전 방향으로 첫째, 특화주제를 선정할 때는 지역자원, 지역정체성, 지역브랜드,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할 것, 둘째, 특화 장서의 비중은 1만 권은 되어야 하며,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려할 것, 셋째, 특화 장서의 내용에 따라 공간구성도 고려할 것, 넷째,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 그리고 다섯째, 특화주제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 유형을 고려할 것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특화도서관 도입을 고려한다면, 첫째, 지역의 특성과 현 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는 특화주제를 도출해

야 하며, 둘째, 인구 분포와 도서관 이용자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특화 프로그램은 세부 주제 분야별로 체험형, 강의형, 관람형 등의 유형을 혼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특화 공간구성, 전담인력배치, 타 기관과의 연계, 홍보 및 마케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노영희, 오의경(2018)은 도서관장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도서관 특성화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관장들은 특성화 서비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해나갈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특화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주제전문사서의 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도서관장들의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생각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요소로 주제전문사서의 배치를 제안하였다.

윤희윤, 오선경(2021)은 경북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을 위해 국외 주요 공공도서관과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경북도서관 특화장서 개발 등에 대한 도서관 직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경북의 문화권 지형 및 문화유산을 조사·분석해 경북도서관의 특화장서 개발방안과 구축전략을 제안하였다.

정대근, 노영희(2018)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한 특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에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찬식(2008)은 특성화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자료중심과 서비스중심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신효정, 노영희(2022)는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특화도서관 운영 현황과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특화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특화주제는 향토(지역)가 가장 많았고, 전체 장서의 5% 미만을 특화자료로 구성하고, 전체 도서관 프로그램 중 20% 이상, 평균 3-4가지를 특화주제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전담사서를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특화주제가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경우, 특화자료실이 별도로 있는 경우, 전담사서가 있는 경우, 특화 장서가 최소 15% 이상인 경우, 특화 프로그램을 5-6가지 이상을 운영하는 등의 사례에서는 이용자의 인지도와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는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시 공공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특성화 정책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성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특성화 정책의 발전방안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성화 정책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현황 파악 및 향후 나아갈 방향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 현황

공공도서관에서는 특정 한 두 주제를 깊이 있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전문도서관과 달리 다양한 주제를 균형 있게 장서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장서구축 방향성은 주제별·이용자별 균형있는 장서를 구성하되, 예산의 한계, 이용자 요구의 다양성, 지역자원, 지역정체성, 지역브랜드 등에 의해 요구되는 주제 분야에 대해서도 집중적이고 망라적인 수집을 추진하고 있는 형태이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역시 공간이나 예산 등의 제약에 따라 한 도서관에서 모든 분야의 장서를 망라적으로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부산시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하는 도서관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특성화 서비스의 역사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1998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12개관이 분담수서와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 특성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후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도 자체적으로 특성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2011년에는 총 24개관으로 확대되었다. 2022년 7월에는 지자체소속 공공도서관 28곳, 교육청 소속 12곳으로 총 40개 공공도서관이 자발적·산발적으로 특성화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이후 부산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자발적·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 서비스를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이유로는 교육청 도서관을 제외한 지자체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간 중복되는 주제가 많았고, 어린이도서관이나 영어도서관과 같이 도서관 목적 자체가 특성화를 지향하는 도서관이 또 특성화 주제를 가지는 곳도 있어서이다. 부산도서관은 2022년 8월 「부산지역 도서관활성화 계획(장서개발지침)」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중복되는 주제를 정리하고, 도서관 시설, 장서, 인력 및 예산을 고려할 때, 시 도서관정책의 협력파트너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별 거점도서관 중심으로 특성화 주제 개편(안) 제시하였다. 개편(안)에 대한 각 도서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현재의 27개 참여도서관별 특성화 주제를 정립하였다(부산도서관, 2024). 특성화 주제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원칙을 유지하였다. 첫째, 교육청 소속도서관의 분담주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둘째, 어린이도서관, 분관, 사립도서관 등은 특성화 정책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산진구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부산진구 거점도서관이므로 예외로 한다. 셋째, 구별 거점도서관을 중심으로 특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넷째, 1관 1특성화 주제를 원칙으로 한다(부산도서관, 2022, 162-163). 이 원칙에 따라 특성화 서비스를 운영하는 도서관을 조정한 결과, 특성화주제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도서관이 18개관, 주제를 변경하는 도서관이 8개관, 주제가 추가되는 도서관이 1개관이었다. 개편 결과, 2024년 6월 현재 부산 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 주제와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 주제 현황 ('24년 6월 현재)

운영 주체	구별	도서관명	특성화주제		공간	프로그램	비고
			2022년 이후	이전 주제			
지 자 체	부산시	부산도서관	부산학자료 /외국자료	부산관련자료	별도 자료실 /별도 코너	- 도서전시(정기) - 추천도서목록 제공 - 연계 프로그램	변경
	동구	동구도서관	레저스포츠 /관광	레저스포츠	별도 코너	- 도서전시(정기, 특별) - 추천도서목록 제공	변경
	영도구	영도도서관	해양수산	해양수산	별도 코너	-	유지
	부산진구	부산진구어린이 청소년도서관	영화		-	-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추가
	동래구	동래읍성도서관	동래역사	역사향토자료	-	- 도서전시(특별) - 연계 프로그램	변경
	남구	남구도서관	청소년	청소년	별도 코너	- 도서전시(정기) - 추천도서목록 제공 - 연계 프로그램 - 월 1회 청소년 독서회 운영	유지
	북구	만덕도서관	정보화(AI)	정보화(AI)	-	-	유지
	해운대구	해운대인문학도서관	인문학	인문학	-	- 연계 프로그램	유지
	금정구	금정도서관	다문화	다문화	별도 자료실	- 연계 프로그램	유지
	강서구	강서도서관	농업	농업	별도 코너	-	유지
	연제구	연제도서관	평생학습	유아, 어린이	별도 코너	- 연계 프로그램	변경
	수영구	수영구도서관	인문·고전	인문·고전	별도 자료실	- 도서전시(정기) - 추천도서목록 제공 - 연계 프로그램	유지
	사상구	사상도서관	사회복지(노인)	영어도서	별도 코너	-	변경
	사하구	다대도서관	다문화	다문화	별도 자료실	- 연계 프로그램	유지
기장군	정관도서관	에너지	육아 및 자녀교육	별도 코너	-	변경	
교 육 청	부산진구	시민도서관	고문헌	고문헌, 논문, 다문화	별도 자료실	- 도서전시(정기) - 연계 프로그램 - 월별 고문헌 안내문 게시	변경
		부전도서관	금융정보	금융정보	별도 자료실*	2022년까지 특강, 전시회, 서평목록 발간 등 프로그램 운영	유지
	중구	중앙도서관	부산자료	부산자료	별도 코너	- 도서전시(정기, 특별) - 도서목록 공개 - 연계 프로그램	유지
	북구	구포도서관	유아·어린이	유아·어린이	별도 자료실	- 도서전시(정기) - 추천도서목록 제공 - 연계 프로그램	유지
	해운대구	해운대도서관	어린이영어	어린이영어	별도 자료실	- 도서전시(정기) - 추천도서목록 제공 - 연계 프로그램 - 독서퀴즈	유지
		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	관광·여행	관광·여행	별도 코너	- 도서전시(정기) - 도서목록 공개 - 추천도서목록 제공 - 연계 프로그램 - 독서퀴즈	유지
		반송도서관	사학·역사	사학·역사	별도 자료실	- 도서전시(정기/특별) - 추천도서목록 제공 - 연계 프로그램	유지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운영 주체	구별	도서관명	특성화주제		공간	프로그램	비고
			2022년 이후	이전 주제			
	서구	구덕도서관	건강	건강	별도 코너	- 도서전시(정기) - 도서목록 공개 - 추천도서목록 제공 - 연계 프로그램 - 독서 퀴즈 운영, 서평전시회 운영, 서평자료집 발간 및 배부	유지
	금정구	서동도서관	환경	환경	별도 코너	- 도서전시(정기) - 도서목록 공개 - 연계 프로그램 - 추천도서목록 제공 - 정책 홍보물 제공 및 게시, 환경 보호 산책	유지
	사하구	사하도서관	취업정보	취업정보	별도 코너	- 도서전시(특별) - 추천도서목록 제공 - 연계 프로그램	유지
	연제구	연산도서관	해양·수산	해양·수산	별도 코너	- 도서전시(정기) - 연계 프로그램	유지
	동래구	명장도서관	철학	전자자료	별도 코너	- 도서전시(정기) - 도서목록 공개 - 연계 프로그램 - 추천도서목록 제공	변경

*현재 휴관으로 미운영

출처: 2024년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주제 활성화 계획(부산도서관)

Ⅲ.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대상과 자료수집

부산지역의 공공도서관이 특성화 서비스를 진행한 것은 1998년부터이지만 부산도서관이 개입하고 주제를 정비하여 재출발한 것은 2022년부터이다. 정비하여 시행된 지 불과 2년여에 불과하지만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사서의 인식조사를 통해 향후 특성화 서비스의 방향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인터뷰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주제 운영현황」(부산도서관, 2024)에 의하면, 2024년 5월 현재 총 27개 관이 특성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해당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7개 도서관 중 현재 임시 휴관 중인 도서관 1개관 등 2개 도서관을 제외한 25개 도서관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기간은 2024년 5월 7일-5월 27일(21일간)까지였으며, 배포한 27부 중 총 25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2.6%이다.

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내용은 특성화 서비스 현황 및 인식에 관한 사항, 특성화 장서구축 및 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등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설문내용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고, 차별화된 문항으로 특성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추가하였다. 부산시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는 부산도서관이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해 단위도서관이 기대하는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영역별 세부 내용과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설문내용과 문항 구성

구분	문항	문항수
특성화 서비스의 현황과 사서의 인식	① 특성화 서비스 기간 ② 특성화 서비스 실시 이유 ③ 특성화 자료의 비중 ④ 특성화 자료의 이용정도 ⑤ 특성화 자료에 대한 상호대차 서비스 요구정도 ⑥ 특성화 서비스 주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 ⑦ 특성화 서비스 주제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프로그램 이용정도 ⑧ 특성화 장서구축 내용 장서개발정책서 포함 여부 ⑨ 특성화 장서구축이 자료구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⑩ 광역대표도서관으로부터 특성화 서비스 예산지원 여부 ⑪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여부 ⑫ 특성화 서비스 관련 전문교육 이수 여부 ⑬ 특성화 서비스 홍보 방식 ⑭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의견(7) - 특성화 서비스의 필요성, 특성화 서비스 운영의 적절성, 특성화 자료구입비 운영의 적절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특성화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공,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예산지원의 적절성	20
특성화 장서구축 및 서비스의 발전방안	① 특성화 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7) - 특성화 장서구입의 확대,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독립공간의 확보,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담인력의 배치,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기회의 확대, 특성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 특성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② 특성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	8
일반사항	① 성별 ② 사서 근무 경력 ③ 특성화 서비스 관련 근무경력	3
총 문항 수		31

IV. 설문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사서 근무경력, 특성화 서비스 근무경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성별에서는 '여성'이 17명(68.0%), '남성'이 8명(32.0%)으로 나타났다. 사서 근무 경력에서는 '5년 미만'이 9명(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8명(32.6%), '10년 이상-15년 미만'이 4명(16.0%), '15년 이상-20년 미만'이 3명(12.0%), '20년 이상'이 1명(4.0%)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서비스 근무경력에서는 '5년 미만'이 22명(8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3명(2.0%)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의 근무경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5년 미만'이 9명(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8명(32.0%), '10년 이상-15년 미만'이 4명(16.0%), '15년 이상-20년 미만'이 3명(12.0%), '20년 이상'이 1명(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의 특성화 서비스 근무경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5년 미만'이 22명(8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년 이상-10년 미만'이 3명(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특성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사항

구분	항목	인원(명)	비율(%)
성별	남성	8	32.0
	여성	17	68.0
사서 근무 경력	5년 미만	9	36.0
	5년 이상 - 10년 미만	8	32.0
	10년 이상 - 15년 미만	4	16.0
	15년 이상 - 20년 미만	3	12.0
	20년 이상	1	4.0
특성화(서비스) 근무 경력	5년 미만	22	88.0
	5년 이상 - 10년 미만	3	12.0
	10년 이상 - 15년 미만	0	0.0
	15년 이상 - 20년 미만	0	0.0
	20년 이상	0	0.0
합계		25	100.0

2. 특성화 서비스의 현황과 사서의 인식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이 해당 주제로 특성화 서비스를 실시한 기간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9년 이상'이 11개관(4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년 이상-3년 미만'이 6개관(24.0%),

‘3년 이상-5년 미만’이 4개관(16.0%), ‘5년 이상-7년 미만’이 3개관(12.0%)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주제 현황을 근거로 했을 때, 3년 미만으로 응답한 7개관은 2022년 특성화 주제 개편 당시 주제가 변경된 도서관과 새로 추가된 도서관이며, 3년 이상으로 응답한 18개관은 기존 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도서관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9년 이상’으로 응답한 11개관은 1998년 부산시에서 특성화 서비스를 시작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실시해 온 도서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4〉 특성화 서비스 실시 기간

구분	도서관수	비율(%)
1년 미만	1	4.0
1년 이상 - 3년 미만	6	24.0
3년 이상 - 5년 미만	4	16.0
5년 이상 - 7년 미만	3	12.0
7년 이상 - 9년 미만	0	0.0
9년 이상	11	44.0
합계	25	100.0

특성화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광역대표도서관의 특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이 13개관(3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의 입지조건에 근거하여 추진’이 8개관(22.2%),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추진’이 7개관(19.4%), ‘해당 주제의 장서 등 여건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 우위에 있는 상황에 근거하여 추진’이 4개관(11.1%),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추진’이 2개관(5.6%)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근거하여 추진’한 도서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지자체 정책에 따라 특성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36.1%로 가장 많았으나, 도서관의 입지조건과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거나 도서관 보유 장서의 강점에 기반하여 특성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도서관이 총 41.6%로 나타나, 단위도서관 차원의 자발적인 의지로도 특성화 서비스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표 5〉 특성화 서비스 실시 이유 (복수응답)

구분	도서관수	비율(%)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역사적 배경에 근거하여 추진	7	19.4
도서관의 입지조건에 근거하여 추진	8	22.2
광역대표도서관의 특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	13	36.1
해당 주제의 장서 등 여건이 다른 도서관에 비해 우위에 있는 상황에 근거하여 추진	4	11.1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추진	2	5.6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근거하여 추진	0	0.0
기타	2	5.6
합계	36	100.0

특성화 자료가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3% 미만'이 10개관(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3% 이상-5% 미만'과 '5% 이상-10% 미만'이 각각 6개관(24.0%), '20% 이상'이 2개관(8.0%), '10% 이상-15% 미만'이 1개관(4.0%) 순으로 나타났다. 10%를 상회하는 도서관도 있었으나, 대다수 도서관의 특성화 장서의 비중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도서관 중 특성화 자료의 비중이 10%를 상회하는 도서관은 총 3개관으로, 1개관을 제외한 2개관 모두 9년 이상 해당 주제로 특성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자료실을 구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장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성화 주제의 장서를 어느 정도 구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특성화 서비스를 실시하는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여 장서를 구축하는 사례는 있다. 안양시의 경우, 1999년부터 특성화 주제 장서를 지정하여 구축하고 있는데,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는 도서관별로 전체 장서의 10%를 구축해야 하는 내부 방침에 근거하여 장서를 구축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12개 강남구립 도서관이 특성화 주제를 분담하여 자료를 구입하며 매월 전체 장서의 15% 이상을 특성화 장서에 할당하고 있다(부산도서관, 2022, 155-156.). 더불어 2023년 청주시 시립도서관 중 청주우창호수 도서관 6개관을 대상으로 특성화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성화 주제 장서가 전체 장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1%, 최대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경, 2023, 30). 이러한 현황에 근거해 보았을 때, 특성화 장서는 도서관장서 중 10-15% 가량을 할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산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서관별 편차가 큰 편임을 알 수 있었다.

〈표 6〉 특성화 자료의 비중

구분	도서관수	비율(%)
3% 미만	10	40.0
3% 이상 - 5% 미만	6	24.0
5% 이상 - 10% 미만	6	24.0
10% 이상 - 15% 미만	1	4.0
15% 이상 - 20% 미만	0	4.0
20% 이상	2	8.0
합계	25	100.0

일반자료와 비교했을 때, 특성화 자료의 이용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보통이다'가 10개관(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낮은 편이다'와 '매우 낮은 편이다'가 각각 5개관(20.0%), '높은 편이다'가 4개관(16.0%)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자료의 이용 정도는 일반자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특성화 자료의 이용정도가 '낮은 편이다'와 '매우 낮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10개관의 경우, 주제, 특성화 실시기간, 홍보방법, 독립공간 여부 등을 살펴본

결과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성화 자료의 이용정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4개관의 경우, 그 주제가 ‘유아·어린이’, ‘인문·고전’, ‘평생학습’, ‘어린이영어’ 등 어린이와 같은 특정 연령층이나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표 7〉 특성화 자료의 이용정도

구분	도서관수	비율(%)	평균(점)	표준편차
매우 높은 편이다	0	0.0	2.54	1.021
높은 편이다	4	16.0		
보통이다	10	40.0		
낮은 편이다	5	20.0		
매우 낮은 편이다	5	20.0		
미응답	1	4.0		
합계	25	100.0	/	/

일반자료와 비교했을 때, 특성화 자료에 대한 상호대차 서비스 요구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낮은 편이다’와 ‘매우 낮은 편이다’가 각각 8개관(3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7개관(28.0%), ‘높은 편이다’가 2개관(8.0%)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자료에 대한 상호대차 서비스 요구정도는 일반자료와 비교했을 때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특성화 자료에 대한 상호대차 서비스 요구정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2개관의 특성화 주제는 ‘인문·고전’과 ‘평생학습’으로, 도서관 특성화 자료의 이용정도 역시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특성화 자료의 이용정도’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은 관심과 흥미가 있을 만한 주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호대차 서비스 요구도 다른 주제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 8〉 특성화 자료에 대한 상호대차 서비스 요구정도

구분	도서관수	비율(%)	평균(점)	표준편차
매우 높은 편이다	0	0.0	2.12	.971
높은 편이다	2	8.0		
보통이다	7	28.0		
낮은 편이다	8	32.0		
매우 낮은 편이다	8	32.0		
합계	25	100.0	/	/

특성화 서비스 주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운영한다’가 20개관(80.0%), ‘운영하지 않는다’가 5개관(20.0%)으로 나타났다. 앞 절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주로 도서전시(정기/특별), 추천 도서목록

제공, 도서목록 제공, 연계 프로그램 제공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계 프로그램은 해당도서관 특성화 주제와 관련한 도서관 강좌나 행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외 독서회 운영, 전시회, 특강, 독서퀴즈, 서평자료집 발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특성화 서비스 주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하였다. 가령 특성화 서비스 주제를 '농업'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의 경우, 주제의 특성상 수요가 많지 않고 단순한 이론식 강좌 형태의 프로그램보다는 실무형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을 실시할 공간의 부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해양·수산', '정보화', '사회복지(노인)', '에너지' 등을 특성화(서비스)의 주제로 하는 도서관들은 현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오는 9월 '독서의 달' 기간에 맞추어 관련 주제의 도서 전시와 홍보 등을 계획하여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표 9〉 특성화 서비스 주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 여부

구분	도서관수	비율(%)
운영한다	20	80.0
운영하지 않는다	5	20.0
합계	25	100.0

특성화 서비스 주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 이용정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높은 편이다'가 8개관(40.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6개관(30.0%), '매우 높은 편이다'가 4개관(20.0%), '낮은 편이다'가 2개관(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주제 관련 프로그램 이용정도는 특성화 장서 이용정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서비스 주제 관련 프로그램 이용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서관 4관의 특성화 주제는 '유아·어린이', '관광·여행', '다문화', '부산자료'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의 관심과 흥미가 높은 분야이므로 프로그램으로 기획할 경우에도 이용정도가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10〉 특성화 주제 관련 프로그램 이용정도

구분	도서관수	비율(%)	평균(점)	표준편차
매우 높은 편이다	4	20.0	3.70	.923
높은 편이다	8	40.0		
보통이다	6	30.0		
낮은 편이다	2	10.0		
매우 낮은 편이다	0	0.0		
합계	20	100.0	/	/

특성화 장서구축과 관련한 내용이 장서개발정책서나 장서개발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포함되어 있다'가 14개관(56.0%),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1개관(44.0%)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장서구축 관련 내용이 장서개발정책서나 장서개발지침서¹⁾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14관을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특성화 주제만 간략하게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7개관, 특성화 장서의 범주와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5개관, 특성화 장서의 비중을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2개관 등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장서의 비중을 명시하고 있는 2개관의 경우 비중을 각각 '5% 이상',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특성화 장서구축 관련 내용의 장서개발정책서 포함 여부

구분	도서관수	비율(%)
포함되어 있다	14	56.0
포함되어 있지 않다	11	44.0
합계	25	100.0

특성화 장서구축에 전체 자료구입비의 어느 정도를 집행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3% 미만'이 8개관(3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 이상-5% 미만'이 7개관(28.0%), '5% 이상-10% 미만'이 6개관(24.0%), '10% 이상-15% 미만'이 2개관(8.0%), '15%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1개관(4.0%)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자료구입비의 비중이 '15%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의 경우, '유아·어린이', '인문·고전'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 2개관 모두 특성화 자료의 비중이 '20% 이상'이며 특성화 서비스를 위해 별도 자료실을 구비하여 해당 주제로 서비스를 실시한 기간이 '9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특성화 자료의 이용정도, 특성화 자료에 대한 상호대차 서비스 요구정도,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정도 등을 살펴본 결과, 그중 1개관은 모두 '높은 편이다'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1개관은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로 응답하였다. 즉, 특성화 자료와 자료구입비의 비중이 높고 장기간 서비스를 실시한 도서관의 경우 서비스 이용정도 역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자료구입비에서 특성화 장서 예산의 정도를 비교했을 때, 10%를 상회하는 도서관도 있었으나 대다수 도서관의 특성화 장서 구입 비중은 10% 미만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유사함을 보이고 있었다.

1) 도서관에 따라 장서관리규정, 장서구성방침, 장서관리지침, 장서지침, 장서개발지침,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다.

〈표 12〉 자료구입비 대비 특성화 장서예산의 비중

구분	도서관수	비율(%)
3% 미만	8	32.0
3% 이상 - 5% 미만	7	28.0
5% 이상- 10% 미만	6	24.0
10% 이상 - 15% 미만	2	8.0
15% 이상 - 20% 미만	1	4.0
20% 이상	1	4.0
합계	25	100.0

광역대표도서관으로부터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예산 지원받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예산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에 25개관(100.0%)이 응답하여 모든 도서관이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경우, 시정업무 정책부서는 본청 창조교육과이며 예산교부 등의 업무 역시 창조교육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현재 부산도서관에서 단위도서관으로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대표도서관 차원에서 단위도서관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예산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광역대표도서관으로부터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예산 지원 여부

구분	도서관수	비율(%)
예산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25	100.0
합계	25	100.0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가 20개관(80.0%),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가 5개관(20.0%)이었다.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도서관의 경우 모두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별도 자료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내 다른 업무와 특성화 서비스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4〉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담인력의 배치 여부

구분	도서관수	비율(%)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5	20.0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20	80.0
합계	25	100.0

특성화 서비스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가 24명(96.0%),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가 1명(4.0%)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실시하는 사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에 '도서관 특성화서비스'라는 주제의 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고, 강좌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에 응답자의 경우 도서관이 특성화 주제로 하고 있는 내용으로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여 특성화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여부

구분	인원(명)	비율(%)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1	4.0
전문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24	96.0
합계	25	100.0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내부 게시판 활용'이 각 13개관(25.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 이용안내 리플렛'이 8개관(15.7%), '도서관 SNS'가 4개관(7.8%), '관내 공공기관 이용'이 2개관(3.9%), '지역방송이나 신문'이 1개관(2.0%) 순으로 나타났다. 홍보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7개관(13.7%)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도서관 홈페이지', '도서관 내부 게시판 활용' 그리고 '도서관 이용안내 리플렛' 등 실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정보가 노출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외부에서 특성화 서비스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도서관 SNS', '관내 공공기관 이용' '지역방송이나 신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6〉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홍보방식(복수응답)

구분	도서관수	비율(%)
도서관 홈페이지	13	25.2
도서관 이용안내 리플렛	8	15.7
도서관 SNS	4	7.8
도서관 내부 게시판 활용	13	25.5
지역방송이나 신문	1	2.0
관내 공공기관 이용	2	3.9
홍보하고 있지 않음	7	13.7
기타	3	5.9
합계	51	100.0

특성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도서관의 현황과 별개로 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서의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공도서관에서 특성화 서비스는 필요하다'가 3.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 도서관의 특성화 장서구축을 위한 자료구입비는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가 3.64점, '우리 도서관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가 3.48점,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가 3.40점, '우리 도서관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가 3.28점, '광역대표도서관은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가 2.92점, '광역대표도서관은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예산지원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가 2.1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담당자는 특성화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단위도서관 차원에서 특성화 장서구축을 위한 자료구입비 집행의 적절성,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특성화 서비스 운영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표준편차가 높게 나타나 도서관 간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광역대표도서관에서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하는 부분과 예산지원이 적절한지 묻는 문항에서는 대체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7〉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의견

구분		인원(명)	비율(%)	평균(점)	표준편차
공공도서관에서 특성화 서비스는 필요하다.	매우 그렇다	6	24.0	3.96	.889
	그렇다	14	56.0		
	보통이다	1	16.0		
	그렇지 않다	0	0.0		
	전혀 그렇지 않다	7	4.0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는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매우 그렇다	2	8.0	3.40	.913
	그렇다	10	40.0		
	보통이다	10	40.0		
	그렇지 않다	2	8.0		
	전혀 그렇지 않다	1	4.0		
우리 도서관의 특성화 장서구축을 위한 자료구입비는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	매우 그렇다	5	20.0	3.64	1.114
	그렇다	11	44.0		
	보통이다	6	24.0		
	그렇지 않다	1	4.0		
	전혀 그렇지 않다	2	8.0		

구분		인원(명)	비율(%)	평균(점)	표준편차
우리 도서관의 특성화 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매우 그렇다	4	16.0	3.28	1.308
	그렇다	9	36.0		
	보통이다	6	24.0		
	그렇지 않다	2	8.0		
	전혀 그렇지 않다	4	16.0		
우리 도서관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16.0	3.48	1.085
	그렇다	9	36.0		
	보통이다	9	36.0		
	그렇지 않다	1	4.0		
	전혀 그렇지 않다	2	8.0		
광역대표도서관은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1	4.0	2.92	1.038
	그렇다	6	24.0		
	보통이다	11	44.0		
	그렇지 않다	4	16.0		
	전혀 그렇지 않다	3	12.0		
광역대표도서관은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예산지원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다.	매우 그렇다	0	0.0	2.16	.943
	그렇다	2	8.0		
	보통이다	7	28.0		
	그렇지 않다	9	36.0		
	전혀 그렇지 않다	7	28.0		
합계		25	100.0	/	/

3. 특성화 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논의

특성화 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담당자의 의견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기회의 확대'가 3.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3.60점, '특성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가 3.56점,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독립공간의 확보'가 3.48점,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3.28점,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3.24점, '특성화 장서구입의 확대'가 3.2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담당자는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8〉 특성화 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

구분		빈도(명)	비율(%)	평균(점)	표준편차
특성화 장서구입의 확대	매우 필요하다	3	12.0	3.20	1.031
	필요하다	9	36.0		
	보통이다	9	36.0		
	필요하지 않다	0	0.0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8.0		
	미응답	2	8.0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독립공간의 확보	매우 필요하다	5	20.0	3.48	1.083
	필요하다	10	40.0		
	보통이다	5	20.0		
	필요하지 않다	3	12.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4.0		
	미응답	1	4.0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담인력의 배치	매우 필요하다	3	12.0	3.24	1.119
	필요하다	10	40.0		
	보통이다	6	24.0		
	필요하지 않다	3	12.0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8.0		
	미응답	1	4.0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기회의 확대	매우 필요하다	5	20.0	3.68	.955
	필요하다	13	52.0		
	보통이다	4	16.0		
	필요하지 않다	1	4.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4.0		
	미응답	1	4.0		
특성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매우 필요하다	3	12.0	3.60	.913
	필요하다	12	48.0		
	보통이다	8	32.0		
	필요하지 않다	1	4.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4.0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	매우 필요하다	0	0.0	3.28	.824
	필요하다	14	56.0		
	보통이다	7	28.0		
	필요하지 않다	2	8.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4.0		
	미응답	1	4.0		
특성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매우 필요하다	3	12.0	3.56	.901
	필요하다	14	56.0		
	보통이다	5	20.0		
	필요하지 않다	1	4.0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4.0		
미응답	1	4.0			
합계			100.0	/	/

부산지역 특성화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 9명(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표 18> 특성화 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에서 '특성화 서비스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기회의 확대'의 필요성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것과 그 결과가 일치한다. 이어 '장서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8명(32.0%), '별도의 예산지원'이 6명(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담당자들은 단위도서관이 체계적이고 원활한 특성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특성화 장서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9명 중 5명은 특성화 서비스를 실시한지 9년 이상인 도서관 담당자로 나타나, 오랜 기간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특성화 서비스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노하우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9> 부산지역 특성화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역할

구분	빈도(명)	비율(%)
별도의 예산지원	6	24.0
장서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공	8	32.0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9	36.0
커뮤니티 형성	1	4.0
기타	1	4.0
합계	25	100.0

V. 결 론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 운영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산지역의 27개 공공도서관은 부산도서관의 2022년도 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차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에게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특성화 주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연구 결과, 이러한 특성화 서비스의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특성화 주제 선정과 관련하여 도서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광역대표도서관의 특성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도서관이 13개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도서관은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해당도서관 장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주제가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며, 이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노영희, 곽우정, 신영지(2019)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것처럼, 특성화 주제를 선정할 때는 지역자원, 지역정체성, 지역브랜드,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특성화 장서의 비중이 5% 미만인 도서관이 16개관(64.0%)으로 나타나 전체 장서에서 특성화 장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구입비 대비 특성화 장서 예산의 비중을 보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다. 21개 도서관이 특성화 장서 구입을 위해 자료구입비의 10% 미만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신효정, 노영희(2022)가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에서 전체 장서의 5% 미만을 특성화 자료로 구성하고 있다고 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특성화 장서를 구축한 지 오래되고 별도의 특성화 서비스 공간을 구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개의 도서관은 특성화 장서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프로그램, 전담인력, 공간 등도 중요하지만 특성화 서비스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관련 주제 분야의 자료 확보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자료구입비의 일정 비율의 배정을 통해 특성화 관련 장서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영희, 곽우정, 신영지(2018)는 특화장서의 규모를 비율로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현황조사를 기반으로 보면, 적어도 1만권 정도의 특화 장서를 소장하고 있어야 하고, 규모가 작은 도서관은 장서의 비중을 40% 정도로 높여서 도서관의 특화 장서를 구성할 것을 권장했다.

특성화 자료의 이용정도를 조사했을 때, 낮다고 응답한 도서관과 높다고 응답한 도서관의 차이는 특성화 주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 자료의 이용정도가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도서관의 특성화 주제를 보면 '유아·어린이', '인문·고전', '평생학습', '어린이영어' 등과 같이 특정 연령층이나 다양한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는 주제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들 도서관은 상호대차 서비스에서도 높은 이용정도를 나타냈다. 관건은 특성화의 주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도서관(20개관)이 특성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직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은 주제 특성상 수요가 많지 않아서 혹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공간의 부족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도서관도 9월 '독서의 달' 기간에 맞추어 관련 주제의 도서 전시와 홍보 등을 계획하는 등 단계적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성화 서비스는 관련 자료의 구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성화 주제를 이용한 공감형, 체험형, 강의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특성화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도서관 대부분이 장서개발 지침서에 특성화 장서구축에 관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특성화 주제만 간략하게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7개관, 특성화 장서의 범주와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이 5개관, 특성화 장서의 비중을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은 2개관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특성화 서비스의 관건은 관련 주제 자료 확보이다. 따라서 장서개발정책에 특성화 자료 수집

에 대한 범위와 선정기준, 비중을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도서관(20개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성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된다. 전담직원의 미배치는 특성화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특성화 서비스의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부산지역 특성화의 차별성은 부산도서관이 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특성화주제 활성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공공도서관 특성화 서비스 담당자들은 부산도서관이 추진하는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특성화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광역대표도서관이 서비스에 대한 지침 제공,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교육 이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성화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적극적인 홍보, 독립공간의 확보, 충분한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담당자들은 특성화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 서비스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장서와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특성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특성화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과 운영 지침 등을 확대해야 한다. 예산지원을 통해 특성화 서비스가 도서관의 중요한 운영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지침을 통해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셋째,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특성화 공간 구성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였지만 한계가 존재한다. 연구 대상이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 국한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도서관 상황과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성화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히, 도서관의 특성 및 환경, 특성화 주제, 이용 특성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분석이 동반되면 연구의 완성도가 높아지겠지만, 사례수가 적어 상관분석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특성화 서비스의 운영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성화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특성, 특성화 주제, 이용자의 특성 등과의 관계에서 이용정도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는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주민들

에게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화 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 예산지원, 광역대표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보일, 김홍렬 (2024). 지역 환경 기반의 특성화 도서관 운영 방향에 관한 연구: A군 도서관 건립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41(1), 59-83.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1.059>
- 노영희, 박우정, 신영지 (2018). 도서관의 특성화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도서관 특화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245-27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3.245>
- 노영희, 신영지, 박우정 (2017). 도서관의 특성화 정책과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247-27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3.241>
- 노영희, 신영지, 박우정 (2018). 특화도서관 사서의 인식조사 기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91-11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4.091>
- 노영희, 신영지, 박우정 (2019). 도서관 특화에 대한 비특화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인식비교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1), 77-9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1.077>
- 노영희, 오의경 (2018). 공공도서관의 특성화 방향에 대한 도서관 관장의 인식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151-178. <http://dx.doi.org/10.16981/kliss.49.2.201806.151>
- 노영희, 오의경, 심효정 (2017). 주제별 특성화 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현장사서의 의견 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321-350.
<http://dx.doi.org/10.16981/kliss.48.4.201712.321>
- 부산도서관 (2022). 부산지역 도서관 활성화 계획 연구. 부산: 부산도서관.
- 부산도서관 (2024). 2024년 부산시 공공도서관 특성화 주제 활성화 계획. 부산: 부산도서관.
- 심효정, 노영희 (2022). 특화도서관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3), 47-72.
<http://dx.doi.org/10.16981/kliss.53.3.202209.47>
- 윤희윤, 오선경 (2021). 경북도서관 특화장서 개발 전략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1), 143-168.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1.143>
- 장경 (2023).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이벤트 컬렉션 운영에 관한 연구: 청주오창호수도서관 6개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장서이, 김용선, 김억 (2016). 특화 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1(4), 77-87. <http://dx.doi.org/10.35216/kisd.2016.11.4.77>
정대근, 노영희 (2018).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한 특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4), 51-75.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4.051>
조찬식 (2008). 공공도서관의 특성화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159-178.
<http://dx.doi.org/10.3743/KOSIM.2008.25.3.159>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usan Metropolitan Library (2022). Study on Library Revitalization Plan in Busan. Busan: Busan Metropolitan Library.

Busan Metropolitan Library (2024). 2024's Plan to Revitalize Public Library Specialization Topics in Busan. Busan: Busan Metropolitan Library

Chang, Seoe, Kim, Youngsun, & Kim, Uk (2016). A study on the space organization and features of specialized library.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Spatial Design, 11(4), 77-87. <http://dx.doi.org/10.35216/kisd.2016.11.4.77>

Cho, Chan-Sik (2008). A study on the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159-178.
<http://dx.doi.org/10.3743/KOSIM.2008.25.3.159>

Jang, Kyung (2023). A Study on the Operation of Specialized Service Event Collection in Public Library: Focusing on the Case of 6 Libraries in Cheongju Ochanghosu Librar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Cheongju University.

Jeong, Dae-Keun & Noh, Younghee (2018). A study on users' perception of specialized services through service quality evaluation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4), 51-75.
<http://dx.doi.org/10.3743/KOSIM.2018.35.4.051>

Kim, Boil & Kim, Hong Ryul (2024). A study on the operation direction of the specialized library based on the local environment: focusing on the construction of county a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1), 59-83.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1.059>

- Noh, Younghee, Kwak, Woojung, & Shin, Youngji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library specialization based on cas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3), 245-27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3.245>
- Noh, Younghee & Oh, Euikyung (2018). A study on the library director's perception on public library specialization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2), 151-178. <http://dx.doi.org/10.16981/kliss.49.201806.151>
- Noh, Younghee, Oh, Euikyung, & Sim, Hyojung (2017). An investigation on the opinion of the librarian concerning the subject-specialized service and librarianshi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321-350.
<http://dx.doi.org/10.16981/kliss.48.4.201712.321>
- Noh, Younghee, Shin, Youngji, & Kwak, Woojung (2017). A study on policies and future directions in library speci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241-27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3.241>
- Noh, Younghee, Shin, Youngji, & Kwak, Woojung (2018). A study on activation plan of the perception survey foundation for specialized library libraria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9(4), 91-111.
<https://doi.org/10.14699/kbiblia.2018.29.4.091>
- Noh, Younghee, Shin, Youngji, & Kwak, Woojung (2019). Comparative study on perception of specializing libraries of non-specialized library librarian and user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1), 77-99.
<https://doi.org/10.14699/kbiblia.2019.30.1.077>
- Sim, Hyojung & Noh, Younghee (2022). Study on the operation status of specialized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3), 47-72.
<http://dx.doi.org/10.16981/kliss.53.3.202209.47>
- Yoon, Hee-Yoon & Oh, Seon-Kyung (2021). A study on the strategy for developing specialized collections of Gyeongbuk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1), 143-168.
<http://dx.doi.org/10.3743/KOSIM.2021.38.1.143>